

# 작품 아이디어 보성 '숨'에서 태어나...차기작도 구상



윤태호 작가가 최근 보성 천연염색공예관 '숨'에서 '한 달 살기'를 시작했다. 대문 앞에서 포즈를 취한 윤 작가.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미생'·'내부자들' 윤태호 작가 보성 천연염색공예관 '숨'에 입주 전라남도 한달살기 프로그램 일환 내년 개봉예정 '파인'·'이끼' 작업

극장가와 브라운관에 대중적인 관심을 받아 온 윤태호 작가가 최근 전남도 지원을 받아 보성 천연염색공예관 숨(이하 숨·보성군 복내면 개기로 1529-45)에서 '한 달 살기'를 시작했다.

최근 한옥 공간 숨에서 윤 작가를 만났다. "만화 '이끼'를 드라마화하기 위해 트리트먼트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로 윤을 댔 그는 "전남문화재단 김은영 대표이사 제안을 받아 유휴 공간을 레지던시로 활용하는 '전라남도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일환으로 일주일 전에 입주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출신인 윤 작가는 1993년 월간잡지 '비상' '착륙'으로 데뷔했으며 '부친만화상 일반만화상', '대한민국 출판만화대상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특히 영화-드라마로 개봉한 '미생', '이끼', '내부자들'의 모티브인 동명 만화 원작자로 잘 알려져 있다. 20일에는 CGV 등 전국 극장가에서 '미생: 더할 나위 없었다'가 개봉해 주목받고 있다.

이날 둘러본 숨은 규모 1367㎡에 달하는 넓은 공간감을 자랑했다. 이번 한 달 살기에 앞서 이곳은 '숨&쉽 한옥스테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관광공사 품질인증 받은 전통 숙소로 활용된 바 있다.

최대 28인이 머무를 수 있는 내부는 작업실 겸 숙박용인 휴화방과 쪽방, 통유리창으로 이뤄진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전통 한옥구조를 고스란히 간직한 대청마루, 사랑채도 이목을 끌었고 조붓한 마당과 서까래, 옹마루에 얹힌 기와도 운치 있었다.

도보 1분 거리에 천연염색공예관이 자리했으며 차를 타고 조금만 나서도 초암 정원이나 갈멜정원, 한국차박물관 등 문화예술 공간들이 위치해 아이디어 구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다. 윤 작가는 자신의 만화 팀 및 관리인 등과 함께 머무르며 차기작 구상에 전념하는 중이다.

많은 지역 중 보성을 선택한 이유를 묻자 그는 "스케치에 필요한 디지털 장비들이 많고 무거워서 처음에는 이주를 고민했다"며 "간소화된 장비와 팀을 꾸려 글 작업(사나리오 등)에 몰두할 수 있었다는 생각으로 보성을 택했다"고 답했다. 브



레인스토밍에 활용하는 화이트보드나 프린터 등 창작 기자재는 보성군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이어 "목포도 염두에 두었으나 변화가 없어서 떨어졌고 산에 휘감겨 있는 지형을 원했는데 숨이 적격이었다"고 부연했다. 내년 7월 디즈니+에서

개봉 예정인 '파인'의 촬영지인 목포, 신안보다 보성을 선택한 데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윤 작가의 동명 웹툰을 극화한 영화 '파인'은 원나라 보물선이 신안 앞바다에 침몰했다는 소문을 듣고 도굴꾼들이 모여 유물을 탈취하는 내용이다. 류승룡, 임수정 등 스타 배우들이 주역을 맡았으며 제작비도 100억원에 달해 '윤태호 파워'를 입증할지 기대를 모은다.

그는 요즘 아침 8-9시쯤 일어나 샤워, 삶은 계란 등 간단한 식사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한다. 새벽 1-2시까지 작업하는 시간 외에는 인근 면사무소에 나가 점심을 먹는 것이 일과의 전부다. 이런 일상을 듣고 가족들은 "빨리 올라오지 말고 작업 완전히 다 끝내고 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내 돈 벌러 나왔지 회사 돈 벌러주러 나왔나?"

지난달 광주신세계 1층에 조성된 미생 아트월에 쓰여 있는 그의 대표작 '미생' 속 명대사들이다. 미생 시즌3도 준비 중이라는 그에게 오늘날 청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없는지 물었다.

그는 "요즘 젊은 세대에겐 조연에 준다는 거 자체가 위험한 일"이라며 "시즌3를 준비하며 주인공 '장그래'를 다시 고민해 보니 젊은 세대는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 성격을 새로운 장그래 캐릭터에 입혀 보겠다는 것.

이처럼 '미생', '이끼' 등 차기작 구상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모두 이곳 '숨'에서 태어났다.

한편 전남도 15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남도에서 한달살기' 지원사업은 광주·전남도 외 거주자(18세 이상)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강진, 광양, 고흥, 구례를 비롯해 담양, 목포, 순천, 완도, 여수, 영암, 장흥, 진도 및 함평, 해남, 화순 등지서 가능하며 숙박비, 체험비 등을 지원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김명숙 작 '거문도 수월산 지락'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앞서 여수미술관, 서울 금보성아트센터에서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 '여수 거문도와 백도' 22일까지 우제길 미술관

거문도는 다도해의 최남단에 서도·동도·고도의 3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올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될 만큼 문화적, 역사적 의미가 깊다. 백도는 쪽빛바다와 어울려 상백도, 하백도 등 39개 무인도로 구성된 국가 지정 명승이다. 멀리서 보면 희게 보인다하여 그같은 명칭이 붙여졌다. 여수 거문도와 백도 등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전시는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우제길미술관에서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전시는 '2024 섬 그리고 섬'을 주제로 펼쳐지고 있다. 우제길미술관과 여수미술관이 함께 마련했으며 거문도·백도의 비경을 볼 수 있는 순회 전이다.

전시에는 여수 작가 김명숙, 김상선, 박근세, 윤석현, 이형모를 비롯해 광주 작가 류미숙, 장연희, 정소영, 천기정 등 10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2박3일 거문도와 백도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풍경을 스케치했다. 섬을 바라보는 작가들의 개성적인 시각이 투영된 작품들에서 특유의 감성이 배어나온다.

여수미술관 서봉희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거문도의 아름다움과 백도의 웅장함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두 섬에 드리워진 역사적 의미까지도 함께 사유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민경 우제길미술관 학예사는 "지역 문화예술

## 김소월 타계 90주년 '시가 흐르는 음악회'

### 21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진달래 꽃', '가는 길', '초혼' 등 토속적 정서와 환을 담아낸 김소월 시인이 독자들 곁을 떠난지 90주년을 맞았다. 서구문학이 범람하던 시기에 민족의 정취를 좇았던 소월은 근현대 시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문화예술단 아나미 루체가 '시가 흐르는 음악회'를 오는 21일 오후 3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극장에서 연다. 김소월 90주년과 아나미 루체 창단을 기념하는 이번 공연은 지역 성악가들의 가곡 독창과 합창, 팬플룻 협연 등으로 채워진다.

공연은 광신대 성악과를 졸업한 테너 서점석이 하대웅 곡 '산', 정세문 '옛 이야기'로 막을 올린다. 저마다 소월의 시에 가사를 붙인 곡들로 웅혼한 느낌을 자아낸다. 이어 소프라노 박소옥은 김영식의 '꿈길' 등으로 관객을 만난다.

1957년 한국 예술가곡의 거목인 김동진이 소월의 대표 시이자 한국 서정시의 기념비적 명작인 동명 시에 가사를 붙인 '진달래 꽃'도 울려 퍼진다. 한의 정서를 민요조 율격으로 녹여내면서 서양 음악의 세련된 어법을 담았다. 광신대 관현악과 출신 최정은 김성호 작 '바다'와 셀린 디온 곡 '사랑의 찬가'를 팬플룻으로 연주한다.

소프라노 장현희가 부르는 '비단안개' 등, 테너 김대원의 '꿈길', '먼 후일'도 레퍼토리에 있다. 이들은 모두 소월 시에 노래를 붙인 것으로 원작에 담겨있는 율격과 서정적인 맛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첼리스트 장철원이



아나미 루체의 공연 장면. <아나미 루체 제공>

들려주는 '바흐 첼로 모음곡 6번, 서곡'도 낭만을 선사한다.

끝으로 전 단원은 이영조 곡 '엄마야 누나야'를 합창하며 막을 내린다. 동요로 자주 구송되는 작품이지만 원작이 김소월이 1922년 문예지 '개벽' 신년 호에 발표한 동명 시라는 사실은 비교적 덜 알려져 있다.

가족과 함께 평온한 강변 분위기에 심취해 살고 싶은 소월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이외 소프라노 이은미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은향은 '님의 노래' 등을 부른다.

한편 이탈리아어로 '마음의 빛'을 뜻하는 아나미 루체(Anime Luce)는 음악을 통해 평안함을 선사하겠다는 취지로 결성된 문화 예술 단체다. 대부분 광신대 음악학부 성악과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예매 아나미 루체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낭만적인 '론 브랜튼의 재즈 크리스마스'

### 22일 ACC 예술극장 극장2

워싱턴 포스트로부터 "매우 시적인 피아니스트"라는 평을 받은 론 브랜튼과 그의 재즈 그룹이 크리스마스 캐럴에 즉흥연주를 가미, 익숙한 재즈 선율을 재해석한다.

뮤지컬파크가 '론 브랜튼의 재즈 크리스마스'를 오는 22일 오후 5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극장2)에서 펼친다.

정통 크리스마스 캐롤인 '징글벨스', '이 아이는 누구일까?', '오 탄넨바움'을 시작으로 빈스 거랄디의 신나는 노래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가 울려 퍼진다.

브랜튼이 유년시절 크리스마스 추억을 모티브로 작곡한 '할리데이 블루스', '어느 날 오는 날'도 레퍼토리에 있다. 이외 '산타 할아버지 오신다네', '화이트 크리스마스' 등 대표적인 메들리가 공연장을 채운다.

색소폰 연주는 네덜란드 노스씨,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 등에서 활약한 마틴 제이콥슨이 맡는다.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수학한 손 펜트랜드(베이스)와 헝가리, 이스라엘, 독일 등지에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즈드러머 매뉴엘 웨이엔드도 출연할 예정이다.

2011년 '자라섬 국제 재즈콩쿨'에서 우승



'론 브랜튼 재즈그룹' <뮤지컬파크 제공>

한 이주미가 보컬리스트로 관객들을 만난다. 매력적인 스캇(뜻 없는 소리를 흉얼거리는 것)과 고음으로 주목받아 온 그는 2018년부터 밴드에 합류했다.

뮤지컬파크 김향란 대표는 "겨울 노래와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하나의 컨셉으로 수년간 진행해 온 론 브랜튼의 음악적 저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다"며 "백인 재즈 피아니스트 특유의 사색적이고 관조적인 면을 탐구하는 그의 '지적인 피아니즘'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했다.

R석 6만7000원, A석 4만7000원, 네이버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